

청매선사 깨달음 얻은 곳, 오도재를 넘다



10월4일 천리순례단이 천은사 참배를 마친 후 수홍루를 지나가고 있다. ①10월6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실상사를 참배했다. 지리산 금계 마을로 향하기 전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양 손을 펼쳐보이고 있는 도법스님(사진 왼쪽)과 자승스님. ②10월3일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화엄사에 들어서고 있다.

했던 우바새 그룹은 이날 선두 그룹에 섰다. 순례 초반이 고비였던 만큼 순례단에 힘을 불어 넣어달라는 지원단 요청 때문이다. 우바새 그룹 8조 조장 정충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는 “평지에선 속도를 내고 내리막길에선 속도를 줄이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걷고 있다”며 “순례단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선두 그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순례단은 물론 지원단을 긴장하게 한다. 지리산 성삼재를 넘어 전북 남원으로 접어드는 구간. 3시간을 걸어야 하는 순례단이 용변을 볼 곳이 마땅치 않은 코스다. 지원단은 하루 전 사전 답사 때 미리 구덩이를 파 둔 곳을 찾아 순례단이 도착하기 직전 휴식 지점에 천막을 세우고 랜턴을 달았다. 누가 뭐래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티가 나진 않는 일. 이상종 숙영팀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 해도 순례단 입장에선 불편함이 많을 것 같다”며 “인대가 늘

어나면서까지 매일을 걷고 15도 이상 일교차를 이겨내며 짐 더미와 함께 텐트에서 몸을 구부려 잠을 청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남원으로 접어들면서 순례단은 덕동리에서 아침 공양을 했다. 따뜻하고 깨끗한 수건과 옷차가 공양에 앞서 순례단을 맞았다. 순례 참가자인 허허스님이 주지로 있는 김해 성조암이 마련한 것으로 18일 간의 걷기 일정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하는 순례단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것이다. 성조암 상우스님과 신도들은 매일 새벽1시 김해를 출발해 순례단 조식 장소로 온다. 출발 일정이 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성조암 식구들도 매일이 긴장이다. 그럼에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수건과 물을 나눠주던 성조암 신도 김차희 씨는 “시간이 허락지 않아 순례단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푼다”며 “순례단이 걷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불교가 참 좋은 것,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순례에는 불교신문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가해 이목을 끌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불교신문분회 신임 위원장 어현경, 부위원장 홍다영, 사무국장 이성진, 재정국장 김은주 등 집행부를 비롯해 장영섭 기자, 주정덕 차장 등 6명이 참가했다.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스님은 “오늘 특별히 불교신문에서 일일 참가를 해줬다”며 재차 고마움을 표했다. **○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을 걷는 순례단 어깨가 험잡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인 10월6일, 새벽 4시 속소를 출발해 실상사 참배를 마친 순례단이 지리산 금계 마을을 지나 경남 오도재를 향해 오르는 길. 이번 일정 중 최대 난코스라 꼽히는 구간을 지나는 순례단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아스팔트 지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는 이중고나 닮았다. 매연과 유독가스를 코 앞에서 뿜어내며 달리는 자동차는 순례단을 위협하고 문명의 이기는 잠잠했

던 순례단 마음까지 재차 해집는다. 이른 새벽 일어나 6시간 내 묵언 행선하고 있는 순례단 몸은 땀으로 이미 흥건히 젖었다. 이따금 땀방울이 떨어지는 자동차 외에 한적함이 가득한 도로엔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체력은 일찍이 되게점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버틸 힘이 되는 건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앞서가는 순례 도반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리고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다. 어느새 높이 773m 오도재 입성을 알리는 ‘지리산제일문’이 이보다 반가울 수 없다. 한편을 지나면 오도재 끝이 보인다. 오도재는 함양 마천면 구양리와 구룡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갯길이다. 삼봉산과 법화산이 만나는 지리산의 마지막 쉼터로, 마천면 삼정리 영원사 도솔암에서 수도하던 청매 인오조사가 이곳을 오가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오도(悟道)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까다로운 이름만큼 오도재는 쉽사리 입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도재에 이르는 길은 오르막길이 연속되는 구간으로 평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되다.

그럼에도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지 두 발에 의지해 오르는 순례단 의지도 만만치 않은 않다.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중 천리순례 소식을 듣고 개별 참가 신청을 냈다는 안은연(62) 씨는 “겉다보면 개인적 아픔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만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찾을 것 없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자체가 코로나 극복이자 대중 포교”라고 했다. 순례단이 오르막 마지막 구간인 오도재 전망대에 도착하자 일찌감치 먼저 나와 이를 기다리고 있던 해인사 사부대중이 순례단을 환대로 맞았다. 이번 순례 주제인 ‘삼보’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한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을 비롯해 10여 명 본말사 주지 스님, 서춘수 함양군수 등은 조망대 아래까지 배선발로 마중했다. 오르막 내리막 곳곳엔 자승스님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남긴 계승,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다’가 써진 현수막이 걸렸다. 현응스님은 “순례단 걸음마다 언뜻이 피어난다는 정진력으로 공덕을 이루시

길 바라다”며 순례단이 지나는 동안 함양불교사암연합회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서춘수 군수도 “함양을 지나는 동안 큰 불편없이 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순례 일정 중 가장 힘든 구간 중 하나로 꼽히는 오도재를 부상자 없이 무사히 넘은 순례단은 오도재 전망대에서 지리산 주능선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왼쪽 천왕봉에서 오른쪽 반야봉까지 27km에 이르는 고봉준령이 한눈에 피로를 씻었다. 여기서부터 이날 숙영지까지 2km 내리막. 한걸 가벼운 모습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는 순례단 뒤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청매선사 십이각사가 눈에 들었다.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 없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네, 깨달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깨달음이라 이름하리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이 길 끝에서 저마다의 선지식 찾기를”

■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스님

“새벽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하늘의 별, 어느 먼 곳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범종소리... 매 순간 순간이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자기 두 발로 꽃잎이 떨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들이 모두 모여 이 길 끝엔 저마다의 선지식을 찾아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호산스님(사진)은 지난해 자비순례에 이어 이번 천리순례 총도감을 맡았다. 걷기 조를 비롯해 이를 지원하는 지원단 등 순례단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로 직위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삼보사찰 순례가 특별한 테마를 갖고 진행되는 만큼 지난 자비순례와는 또 다른 변수가 매일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호

산스님은 “행복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지난해 순례와는 많이 다릅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가 있는 ‘삼보사찰’을 향해 사부대중이 직접 두 발로 10여 개 사찰을 찾습니다. 사찰을 참배하고 불전할 때마다 불심은 깊어지겠지요. 재가 신도들은 물론이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스님도 있고 우리 사찰 신도들 축원을 올려주는 소임자 스님도 있어요. 사부대중을 막론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순례를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힘은 들어도 행복한 발걸음일 뿐입니다.” 호산스님은 “순례단이 반드시 좋은 말씀과 훌륭한 법문 만은 아니더라도 길 위



에서 저마다의 선지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미 100km 구간을 지나온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함양=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사부대중 함께라면 고행도 여행이다”

■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장 원명스님

순례단장 원명스님(사진)은 순례단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는 사람 중 하나다. 천리순례단 기상 알림과 새벽 체조부터 다음날 일정을 조율하고 마지막 취침에 들 때까지 원명스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순례 4일차부터 걷기 조 선두 그룹을 수장해 반영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하루 내 일정 안내를 한다. 원명스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상월선원 결사 정신을 잇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조율하려 한다”며 “어제부터 매번 선두 그룹을 바꾸고 있는 건 속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비구와 비구니, 우

바이와 우바새에 분별을 두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목적이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인 만큼 그 기저에 중심축을 두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평지를 걷던 것과 달리 이번 순례엔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데다 극심한 일교차로 체력적 소모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명스님은 “매일 텐트에서 잠을 자고 씻지도 못하는 불편한 상황들과 마주하더라도 순례 참가자 모두 고통이 아닌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수행과 간절한 염원들이 모여 순례가 끝나는 날까지 지치는 이 없도록 무사히 회향하기만 비랄뿐”이라고 했다. 원명스님은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



더라도 함께 한다면 고행길이 아닌 여행길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 제자답게 고행길을 즐겁게 걸어가자”고 했다. 함양=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